

## 古地圖 서울 四大門 안 지역 異體字의 유형 · 특색과 가치\*

— 奎章閣 고지도 지명 검색의 오류를 곁하여 논함 —

이 경 원

(한양대학교ERICA캠퍼스 중국학과 교수)

### ◆ 국문초록

본 논문은 서울 고지도에 나타난 한자 이체자 자형의 유형을 귀납정리하고, 더불어 그 특색과 가치를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규장각 원문보기의 지명검색의 오류를 교감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서울 고지도 9종에 나타난 이체자의 유형을 크게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①필획을 소폭으로 증감한 것, ②자형의 일부를 간략화 한 것, ③자형의 일부를 부호화 한 것, ④자형의 반쪽을 부호화 한 것, ⑤성부를 동음의 글자로 교체한 것, ⑥자형의 윤곽만 채택한 것, ⑦형성자를 후기 회의자로 바꾼 것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서울 고지도 이체자의 특색은 ①기존 이체자의 계승, ②이체자의 발전, ③이체자의 진화 등이 있다. 가치로는 '이체자 생성의 새로운 루트의 존재'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규장각에서 제공하는 고지도 『靑邱要覽』의 원문보기의 「지명검색」의 오류를 발견하였다. '魚物'广(麤)을 '魚物廣'으로 오인하여 '어물광'으로 오기, '米'广(麤)을 '미엄'으로 오기, '蚕(蠶)頭'를 '천두'로 오기, 관공서 '~寺'를 '~사'로 오기, '廣智門'을 '문지경'으로 오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특기할 사항은 『靑邱要覽』에서 '麤'의 이체자로 '广'을 사용하였는데, 중국 역대의 이체자형에 발견되지 않은 매우 독특한 활용 방안이다. 이는 우리나라 이체자의 혁신적인 활용방안이 적용된 진화된 이체자형으로 간주된다.

주제어 : 서울 고지도, 이체자, 이체자의 진화, 규장각 지명 표기 오류

\* 이 논문은 2015년 한양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I. 서론

異體字는 일반적으로 通時的 이체자와 共時的 이체자로 크게 나뉜다. 前代 자형에 대한 後代 자형 즉 小篆에 대한 楷書 자형은 통시적 이체관계이며, 동일 자형 즉 소전이나 해서 체계 내에서 발생한 자형의 변이는 공시적 이체관계에 해당된다. 또한 공시적 이체자도 상호 대응정도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뉘는데, 同音同義로 완전히 교체활용이 가능한 典型的인 이체자와 부분적으로 이체 관계가 성립되는 部分的인 이체자가 있다<sup>1)</sup>.

이경원(2010)에서 『靑邱圖』·『靑邱要覽』·『東輿圖』·『大東輿地圖』·『大東方輿全圖』 등 5종 고지도에 나타난 서울 四大門 밖 권역의 이체자의 유형을 비교 고찰하였다<sup>2)</sup>. 본고는 그 후속편으로 공시적인 각도에서 古地圖 서울 四大門 안 지역에 표기된 이체자를 비교 고찰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본고는 古地圖 서울 四大門 안에 나타난 ①한자 이체자의 유형을 분류하고, ②고지도 이체자의 特色과 價値를 귀납 정리하고, ③奎章閣 고지도 원문보기의 지명검색의 오류를 수정 교감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 II. 고지도 서울 사대문 안 지역 이체자의 유형과 특색

### 1. 비교 연구 대상 고지도 개략

옛 서울을 묘사한 지도는 필사본부터 목판본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그 명칭 또한 본고에서 언급한 都城大地圖·京兆五部圖(『東輿圖』, 『大東輿地圖』, 『大東方輿全圖』)·首善全圖·漢陽圖·都城圖·都城全圖(『靑

1) 부분 이체자는 A와 B가 상호 교차 활용이 가능한 교차식과 B·C·D 등 자형이 일방적으로 A를 선택 할 수 있는 포함형으로 나뉜다. 이 외에도 동음이체자·이음이체자·異寫字·통시적 이체자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이에 대하여는 「部分異體字的特徵·性質和來源」(黃頌康:1991년)과 「異體字界定中的幾個關鍵問題研究」(曹雨揚, 劉靜萍:2017)을 참고하길 바람.

2) 본고는 필자의 동일 영역 논문인 「古地圖 京兆 四大門밖 지역 한자 異體字 비교 연구」(『비교문화연구』 21집, 2010)의 후속편에 해당한다.

邱要覽』)·朝鮮成市圖 외에도 수많은 별칭이 있다.<sup>3)</sup>

본고는 『都城大地圖』·『東輿圖』·『京兆五部圖』·『大東輿地圖』·『京兆五部圖』·『大東方輿全圖』·『京兆五部圖』·『首善全圖』·『漢陽圖』·『都城圖』·『靑邱要覽』·『都城全圖』·『朝鮮成市圖』 등 9종의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이체자의 유형과 특색을 귀납 정리하였다.

연구 대상 지도의 명칭과 서지 정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도명칭	서울권역 명칭	수록권면	소장처/도서번호	제작형태 /크기	간행연도
『都城大地圖』			한양도성박물관/ 서14165	필사본/ 188×213cm	18세기
『首善全圖』			서울역사박물관/ 서2080	목판식/ 83cm×65cm	1864
『朝鮮成市圖』			서울역사박물관/ 서1317	필사본/ 86cm×66cm	1830
『漢陽圖』			서울역사박물관/ 서8228	필사본/ 100.3cm×57cm	1744년-1760
『都城圖』			규장각/古軸 4709-3, 模寫古軸4709-3	필사본/ 67×92cm	正祖年間: 1776-1800
『靑邱要覽』	『都城全圖』	1권 도성전도 1-4 2권 도성전도 5-8	규장각/ 古 4709-21A-v.1-2	필사본/ 27.5×20cm	高宗年間: 1863-1907
『東輿圖』	『京兆五部』	2첩3열	규장각/가람古 951.01-G421d 김정호작	필사본/ 15.7×11.3cm	未詳
『大東方輿全圖』	『京兆五部』	1첩 7면	규장각/ 奎 10341-v.1-21	필사본/ 32.2×20.7cm	哲宗年間: 1849-1863
『大東輿地圖』	『京兆五部』	1첩 7면	규장각/ 奎 10333-v.1-22, 奎 12380-v.1-22 김정호작	목판식/ 30.2×20.1cm	哲宗12年 (1861)

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양성도』조에서 고대 서울 지도의 명칭을 ‘경도도·경조도·경성도·한양도·한성도·한성부도·한경도·도성도·한양전도·한성전도·경조오부도·수선전도·조선장안도·한양경성도·도성대지도·도성3군문분계지도·한양성시전도·성시전도·사산금표도’ 등으로 정리하였다. 한국학중앙연구원(1991).

상기 고지도의 이체자 표기 상황을 정리하면, ①목판본 보다는 필사본이 정자형에 가까웠으며, ②『도성대지도』가 정자 표기비율이 가장 높고, 『도성도』, 『한양도』가 뒤따르고, ③명칭 표기는 『도성대지도』가 가장 상세하며, 市塵의 표기는 『靑邱要覽』이 매우 자세하였으며, ④이체자형은 전반적으로 유사하였지만, 지도 상호간에 상이한 경우도 존재하고, 특히 동일 지도에서도 서로 다른 자형을 표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 2. 고지도 서울 사대문 안 지역 이체자의 유형

9종의 고대 서울을 묘사한 고지도에 나타난 이체자를 귀납 정리한 결과, ①필획에 변이가 발생된 것, ②部件<sup>4)</sup>에 변이가 발생된 것, ③편방에 변이가 발생된 것, ④글자 전체에 변이가 발생된 것, ⑤육서 구조의 변이로 발생된 것, ⑥다른 글자로 대체된 것 등 여섯 유형으로 귀납 정리할 수 있었다.

그 유형<sup>5)</sup>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리고 본고에서 이체자의 변이와 그 제시형식은 아래 보기와 같다.

(보기 : 土→土 : 桂生洞(계생동, 도성대지도)=土가 土로 변이 : 정자 한자 명칭(한글 명칭, 해당 이체자 출전 지도)=정자 ‘桂’자의 ‘土’가 ‘土’로 변이되었는데, 실례는 『도성대지도』의 桂生洞에 ‘桂’로 필사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 2-1. 필획의 변이

#### ① 필획의 증가

필획이 증가된 이체자로 표기된 예를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㉔ 土→土 : 桂生洞(계생동:도성대지도/도성도/조선성지도), 社稷(사직:

4) 部件은 한자의 외형적 구성요소로, 필획보다는 크고 편방보다는 작은 개념이다. 예를 들어 孿자의 고문인 孿자는 𠂇·子·支(女)·冫·臼등 모두 5개의 부건으로 구성된 형성결회의자이다.

5) 고지도 이체자의 유형은 이경원(2010)에서 상세하게 분류 고찰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주요 유형과 그 예증만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조선성시도/도성대지도/도성도)

- ① 士→土 : 壁莊洞(벽장동:도성대지도), 雨莊峴(우장현:도성대지도)
- ② 白→百 : 柏子洞(백자동:수선전도/도성대지도)

② 필획의 감소

필획이 감소된 이체자로 표기된 예를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者→𠂆 : 歸厚署(귀후서:도성대지도/수선전도/도성도)
- ② 广→𠂇 : 炤硝廳(염초청:도성대지도/청구요람), 供上廳(공상청:도성대지도), 草塵洞(초전동:청구요람), 沙器塵(사기전:도성도), 馬塵橋(마전교:도성대지도)
- ③ 𠂈→丨 : 吏曹(이조:도성도), 六曹(육조:조선성시도), 戶曹內契(호조내계:도성대지도)

2-2. 부건의 변이

① 부건의 변용

부건이 변용된 이체자로 표기된 예를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同→月 : 興仁門(흥인문:청구요람/도성대지도), 興化門(흥화문:청구요람), 興德洞(흥덕동:도성대지도)
- ② 夭→父 : 濟生洞(계생동:수선전도), 軍器橋(군기교:대동여지도), 把子橋(파자교:조선성시도)

② 부건의 부호화

- ① 炊→𠂉𠂉 : 南小營(남소영:도성도), 右營(우영:조선성시도), 圻營(기영:대동여지도)
- ② 𠂉→𠂉 : 壁莊洞(벽장동:도성대지도), 壯洞(장동:대동여지도)
- ③ 𠂉→𠂉 : 樂善坊(낙선방:대동여지도), 藥峴(약현:수선전도)
- ④ 𠂉→又 : 雙里門洞(쌍이문동:도성도), 좌상부 부건 𠂉를 又로 부호화하였다.
- ⑤ 𠂉→米 : 樓閣洞(누각동:조선성시도/수선전도), 燕子樓(연자루:수선전도)

③ 부건의 부가

又→双 : 雙林洞(쌍림동:동여도). 아래 부건 又를 双으로 又를 하나 더 부가하였다.

④ 부건의 생략

- ㉠ 巡→〇 : 巡邏洞(순라동)의 邏를 『도성대지도』는 원래 지명인 邏로 표기한 반면에, 『도성도』와 『청구요람』 「도성전도(3)」에는 邏로 표기하여, 부건 巡을 생략하였다.
- ㉡ 軍→卍 : 軍兜寺(군기시:청구요람/도성도/대동여지도/도성대지도/조선성시도), 漆兜(칠기:청구요람). 監→秋 : 監秋(화기도감:청구요람)

2-3. 편방의 변이

① 형부의 교체

- ㉠ 食→舍 : 成均館(성균관:도성도), 慕華館(모화관:도성대지도)
- ㉡ 石→火 : 焰硝橋(염초교:도성대지도), 焰硝廳(염초청:수선전도)
- ㉢ 鼓→鼓 : 鼓巖(고암:도성대지도)
- ㉣ 鹿→彡 : 瑞麟坊(서린방:도성도)

② 성부의 교체

- ㉠ 亶→丹 : 大報壇(대보단:청구요람/조선성시도), 南壇(남단:대동여지도)
- ㉡ 朝→由 : 文孝廟(문효묘:청구요람), 太廟(태묘:수선전도), 太廟洞(태조동:도성도)
- ㉢ 聽→丁 : 巡廳(순청:도성도), 焰硝廳(염초청:수선전도), 糧餉廳(양향청:수선전도), 均役廳(균역청:도성도), 供上廳(공상청:도성도), 雇馬廳(고마청:도성도)
- ㉣ 量→良 : 糧餉廳(양향청:수선전도)

2-4. 편방의 부호화

- ㉠ 門→门 : 雙里門洞(쌍이문동:청구요람), 三開井洞(삼개정동:청구요람)

- ② 廳→厅 ; 廳厚署(귀후서:도성도)

## 2-5. 전체 자형의 변이

### ① 형부와 성부 교체

廳→厅 : 巡廳(순청:도성도), 焔焔廳(염초청:수선전도), 焔硝廳(염초청:도성도), 糧餉廳(양향청:수선전도), 均役廳(균역청:도성도), 供上廳(공상청:도성도)

### ② 전체 자형의 간화

- ① 興→興 : 興仁門(흥인문:도성도/수선전도), 長興洞(장흥동:대동여지도/청구요람), 興德洞(흥덕동:도성도)
- ② 舊→旧 : 舊光化門(구광화문:도성도)

### ③ 전체 자형의 부호화

雙→双 : 雙里門洞(쌍이문동:대동여지도/수선전도), 雙里洞(쌍리동:한양도)

### ④ 회의자의 간략화

覓→覓 : 木覓山(목명산:대동여지도/청구요람)

## 2-6. 六書상의 변이

일부 이체자는 주로 형성자가 간략한 자형의 회의자로 변이되었다.

- ① 巖→岩 : 安巖洞(안암동:조선성시도/도성도)
- ② 學→學 6) : 東學(동학:청구요람), 中學(중학:청구요람), 西學(서학:수

6) 본고에서 이체자를 표기할 때 편의상 간혹 대만교육부 『異體字字典』에서 복사하여 사용하였다. 이 자형을 서사한 臺灣國立東華大學 許學仁교수에게 임의적 사용 허가 여부를 물은 바, “詢及複制『異體字字典』字形一事, 因『異典』流播網路, 係屬教育部採CC公開之智慧財產, 使用時標注引用來源, 當無疑慮, 我個人亦感榮幸” 라는 회신을 받았다. 즉 대만 교육부가 CC라이선스로 네트워크에 공개한 지적 재산이므로 출처만 밝힌다면 그 자형을 임의로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선전도), 漢學洞(한학동:수선전도)

## 2-7. 별자의 차용

- ㉠ 蠶→蚕 : 蠶頭(잠두:청구요람/도성도/대동여지도/동여도/한양도/수선전도/도성대지도/조선성시도/대동방여전도)
- ㉡ 壇→塼<sup>7)</sup> : 大報壇(대보단:청구요람/조선성시도), 南壇(남단:대동여지도), 先農壇(선농단:도성도)

## 3. 고지도 서울 사대문 안 지역 이체자의 특색과 가치

서울 사대문 안 지역 고지도에 나타난 이체자의 특색을 정리하면 ①기존 이체자의 계승 : 활용, ②이체자의 발전 : 차용, ③이체자의 진화 : 혁신 등으로 개괄할 수 있다.

### 3-1. 기존 이체자의 계승 : 활용

고지도에 표기된 이체자는 대부분이 중국에서 유래한 이체자를 계승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는 이체자 활용의 초기 단계에 해당되는 현상으로,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 3-1-1. 단순 변이 이체자의 계승과 활용

이에 속하는 유형은 ①필획의 변이, ②부건의 변이, ③편방의 변이, ④전체자형의 변이 등으로 인해 생성된 이체자이다. 본고 2-1~2-5에 이르는 유형이 이에 속한다.

---

7) 특히 『대동여지도』에서 사대문안 권역을 다룬 1첩 7면에는 ‘南塼’으로, 사대문 밖을 다룬 1첩 8면에는 ‘南壇’으로 표기되어 있다. 동일지도에서 동일한 명칭에 대해 서로 다른 글자를 표기한 예로, 상대적으로 간략한 別字를 차용한 것이다.



### 3-1-2 후기 회의자의 계승과 활용

고지도 이체자의 두드러진 특색 가운데 하나는 후기회의자를 자주 사용한다는 점이다. 소위 후기회의자는 『說文』에 실려 있지 않은 그 후대에 만들어진 회의자를 지칭한다. 이런 문자 현상은 육조시기에 극성하였는데 아마도 字義의 직관성 강화 목적에다 당시 사회 풍조에 따른 문자의 유희적 사조가 부가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추정된다. 당시 그런 문자적 현상은 江式의 「古今文字表」와 顏之推의 『顏氏家訓』의 기제<sup>8)</sup>를 통해 파악 할 수 있다.

두 문헌에 등장하는 𣎵·蠶·𣎵·詖·甦는 각각 형성자 歸·蠶·憂·變·蘇의 후기 회의자이고, 𣎵·甬·𣎵는 각각 회의자 辯·罷·老의 후기 회의자이다.

본고에서 다른 고지도에도 이런 후기회의자를 사용함으로써 字義의 직관성 강화와 좁은 공간에 필사 또는 판각하는 지도 한자 표기의 어려움을 경감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서울 고지도 이체자에 나타난 國을 囯, 蠶과 蚕, 覓과 覓, 學과 孛 등의 이체 관계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① 國과 囯의 병용



『漢陽圖』에서 安國洞은 ‘囯’으로, 安國坊은 ‘國’으로 표기하여 동일지도에서 두 가지 다른 자형을 병용하고 하고 있다. 國자는 □→或→國의 과정을 거치며 공식적 통시적 이체자가 발생하였고, 또 或의 或是 또는 疑惑이라는 부정성을 제거<sup>9)</sup>하기 위하여 囯을 새로이 조자하기도 하였다. 國

8) 북위(北魏) 연창(延昌) 3년(514년)에 江式의 「表」에서 “世易風移, 文字改變, 篆形繆錯, 隸體失真, 俗學鄙陋, 復加虛巧, 談辯之士, 又以意說, 炫惑於時, 難以厘改……乃曰 𣎵爲歸, 巧言爲辯, 神虫爲蠶……如斯甚重, 皆不合孔氏古書, 史籀大篆, 許氏說文, 石經三字也.”라고 하였다. 또 『顏氏家訓·雜藝篇』에서도 육조시기의 문자 혼란상에 대하여 “北朝喪亂之餘, 書迹鄙陋, 加以專輒造字, 猥出甚於江南. 乃以百念爲憂, 言反爲變, 不用爲罷, 𣎵爲歸, 更生爲蘇, 先人爲老, 如此非一, 徧滿經傳.”라고 하였다

9) 하영삼, 「부정성과 음험함을 제거한 한자들」에서 “국(國)에 ‘혹시’라는 뜻의 혹(或)이 들어 있고, 또 혹(或)은 ‘의혹’이라는 뜻의 혹(惑)의 원래 글자라는 점에서, 거리낌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하며, 囯(□(나라)+八方(영토))자를 만들면서, 그 부정성이 제거되었다고 하였다. 『중국문학연구』 75집, 2019.

은 원래 영토(口)와 무력(或)에 착안하여 조자한 것이며, 이 외에 王(통치자)와 영토(口)를 묘사한 国, 영토(口)안에 玉(옥 또는 王의 조형미를 위해 점을 찍은 것)이 부가된 国, 영토(口)와 피 통치계층(民)을 묘사한 國<sup>10)</sup>, 八方的 모든 땅이 영토(口)가 됨을 묘사한 阡, 八土의 모든 땅이 영토(口)가 됨을 묘사한 阡<sup>11)</sup> 등등이 있다. 이 외에도 당나라 무후측천 武照가 자기를 상징하는 武를 나라(口)안에 넣은 口+武로 구성된 國자도 만들었다고 한다.

國자는 중화민국 교육부가 1935년에 공포한 『第一批簡體字表』에 채택되었으나 중국에서는 王(통치자)와 영토(口)를 묘사한 國자의 봉건적인 면을 배제하고자 國자를 간화자로 채택하였다.

## ② 蠶과 蚕<sup>12)</sup>

蚕은 본의가 ‘지렁이 전’자이며, 蠶(누에 잠)의 부분이체자로도 사용된다. 서울 고지도에서 木覓山의 바로 옆에 위치하는 蠶頭(잠두)의 이체자로 항상 출현한다. 서울의 명칭이 지도마다 서로 다른 이체자형으로 표기되는 경우

10) 도중만은 孫文의 「太平天國戰史序」의 “洪氏之覆滅, 知有民族而不知有民權, 知有君主而不知有民主(홍수전의 태평천국이 전복되어 멸망한 것은 그가 민족만 고려하고 민권이 중요함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王으로 군림하려고 하였지 민이 주인임을 깨닫지 못해서였다)”를 인용하여 太平天國의 國자와 中華民國의 國자의 함의를 비교 분석하였다(「국(國)자의 문화사 근대 중국의 국호와 속자」, 『중국사연구』 제118집, 2019). 동일 논문에서 國 夫 平 太(태평천국)의 國자가 國(口+丰)로 서사되어 있으며 이런 후기 회의 이체자는 처음 발견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이체자형이 반드시 나름의 의미를 가져야 한다면, 필자가 보기에는 國은 ①丰이 옥 조각을 꿰뚫은 모양이므로 玉(보귀한) 口(나라), ②丰(풍요로운)口(나라), ③『說文·王』에 인용된 孔子와 董仲舒 그리고 許慎의 관점을 종합하면, 三(천지인을) 丨(꿰뚫어) 주재하는 절대자이므로 이는 전지전능한 王(홍수)의 口(나라)를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夫자 역시 천지(二)를 超人間(人)이 꿰뚫고 나간 것을 묘사하여 상제에 버금가는 天王의 파워를 극대화한 이체자형으로 추정된다.

11) 簡宗梧는 「國字條的研訂說明(<http://140.111.1.40/yitia/fra/fra00734.htm>)(臺灣教育部『異體字典』)에서 阡자는 『集韻』을 비롯하여 『類篇』·『俗書刊誤』·『字學三正』·『字彙』·『正字通』 등에서 모두 무후측천이 만든 것이라고 하였지만, 『字彙補』에서 『亢倉子』에 이미 보인다고 한 것에 유의하여 武后 造字라는 설에 대하여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이런 신중한 논증을 존중하자면 阡자를 무후측천이 만들었다고 단정 짓기에는 다소 무리라고 판단된다.

12) 더욱 자세한 고증은 이경원(2010)을 참고하길 바람.

가 많지만, 유독 蠶頭와 木覓山은 특이하게도 거의 일률적으로 蠶頭와 木覓山으로 표기되어 있다. 蠶는 ‘𧈧(東漢張遷碑)’에서 변이된 뒤 ‘蚕(唐·『干祿字書』에서 “蚕蠶, 上俗下正”)’을 거쳐 『龍龕手鑑』에서 ‘蚕’은 ‘通體’로, ‘蚕’은 ‘俗體’로 인정하였다. 또한 ‘蚕(누에 잠)’은 ‘神蟲’으로 『玉篇』에서부터 속자로 인정되고 있다. 누에의 별명이 ‘龍精’인 것을 감안하면, ‘天蟲’과 ‘神蟲’으로 인식되는 것도 과한 것은 아닌 듯하다. 이에 원래 독립적인 음의를 지닌 ‘蚕’이 ‘蠶’의 會意적 구성을 만족시킴으로써 오랫동안 ‘蠶’의 이체자로 활용되었다<sup>13)</sup>. 이에 오히려 본래 뜻보다는 차용된 이체자로 더욱 많이 사용된 관계로 실제 어문생활에서 ‘蠶’자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다. 이에 중화민국 교육부가 1935년에 공포한 『第一批簡體字表』에 ‘蚕’이 채택되었으며, 중국 간화자에도 채택되었다.

### ③ 覓과 覓

남산을 목면산(木覓山)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서울 고지도에서 木覓山으로 표기되어 있다. 覓은 覓의 후기회의자이다. 즉 육조시기에 만들어진 육조회의자이다. 顏之推의 『顏氏家訓·雜藝篇』이나 『正名要錄』에서 언급되고 있다. 覓은 ‘동물이 관찰하며 (발로) 먹이를 탐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覓은 ‘不+見’으로 구성되었으니 ‘안보이니까 찾는다’는 육조 후기 회의자 방식의 자의 표현으로 이해하면 된다.

13) 이처럼 독립적인 음의를 가진 글자가 다른 글자의 이체자로 차용되어 병용되면서 신분이 전환되는 경우도 있다. 즉 ‘臺(태)’는 독립된 음의를 가진 글자이지만, 『東漢張公神碑』에서 ‘臺’자가 ‘臺(대)’와 함께 이체자형으로 수록되어 있다. 즉 ‘臺’를 편방으로 한 ‘臺’가 ‘臺’자의 초기 이체자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宋元以來俗字譜』에 인용된 다수의 소설 필사본이나 『龍龕手鑑』에서 ‘臺’는 ‘臺’의 속자, ‘臺’는 고문’이라는 기록을 통해 진작부터 ‘臺’의 이체자로 ‘臺’ 편방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중화민국 정부가 1935년에 공포한 『第一批簡體字表』에도 ‘臺’의 간체자로 ‘台’를 채택하고 있으며, 중국도 1956년 『簡化字總表』에서沿用하고 있다. 즉 ‘台’자는 본의보다는 臺灣에서는 ‘臺’의 간화자형으로, 중국에서는 ‘臺·廳’의 간화자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臺灣을 나타내는 臺灣의 경우에는 ‘대’로 읽는다.

## ④ 學과 學

고지도에서 정자 비율이 높은 『도성대지도』와 『도성도』에는 ‘學’자로 필사되어 있는 반면에 정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양도』 등에서는 주로 ‘學’으로 필사되어 있으며, 『청구요람』과 『수선전도』에서는 더욱 간략한 형태의 후기 회의자인 ‘學’으로 표기되어 있다.

學자에 대해 『설문』은 :“數, 覺悟也. 从教从一, 一, 尚朦也, 臼聲. 學, 篆文數省.”라고 하였고, 段玉裁는 注에서 :“一下曰:“覆也”. 尚童蒙, 故教而覺之, 此說从一之意. 詳古之製字, 作數从教, 主於覺人. 秦以來去女作學, 主於自覺.....此爲篆文, 則數古文也”라고 하였다.

許慎은 學의 고문은 ‘數’으로 쓰는데, 형부인 ‘一(몽매함을)+支(女, 때로 다스리며)+教(배움으로 깨우쳐주다)’와 성부인 ‘臼(居玉切又居六切, 곡 또는 국)<sup>14)</sup>으로 구성된 형성자이며, 學은 고문 ‘數’에서 ‘支’이 생략된 소전이라고 하였다. 단옥재는 數에 대하여 “아직 몽매한 아동을(一), 가르쳐서 깨우침을 줌(教)하기 때문에, 一을 의미요소로 삼은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였고, 더욱 나아가 學과 數의 관계에서 ①고문인 ‘數’자가 ‘教’를 의미요소로 한 것은 (강압적으로) 가르쳐서 깨우치게 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라면, ②學자는 ‘진나라 이래 女(때로 다스리는 배움)을 생략한 소전으로, 스스로 깨우쳐서 배운다’는 관점을 부각시킨 자형으로 간주하였다. 이는 배움에 대한 시각이 피동에서 주동으로 변화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배움에 대한 시대 변화의 흐름을 꿰뚫은 선진적인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고지도 이체자에 필사된 ‘學’은 ‘女(支)’과 ‘子’로 구성된 회의자로 ‘때로 아이를 가르쳐 깨닫게 한다’는 뜻으로 조합된 것인데, 주동적인 배움인 ‘學’보다 오히려 강압적인 교학 환경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이체 자형에서 어떤 상황 대한 관념과 환경 변화의 일면까지도 엿볼 수 있다.

14) 『설문』의 數자에 대하여 段玉裁는 注에서 “胡覺切, 三部. 後人分別數胡孝反, 學胡覺反(數의 자음은 胡覺切로 고음 운부 三部에 속한다. 후인들이 그 자음을 數로 쓸 때는 胡孝反(효), 學으로 쓸 때는 胡覺反(학)으로 분별하였다)”라고 하였다. 數자는 후대에 教자와 學자로 분화되어 각각 ‘가르치다’와 ‘배우다’의 뜻으로 쓰이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자음도 분화되어 數자가 教(교)자로 쓰일 때는 效(효)가 성부이고, 學(학)으로 쓰일 때는 臼(곡, 국)이 성부라는 추단이 가능하다.

### 3-2. 이체자의 발전 : 차용

서울 고지도의 이체자는 기존 이체자를 계승하여 활용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때로 別字(다른 글자)를 차용하는 한 단계 발전된 경우도 발견된다.

고지도에서 간략한 형태인 冎를 차용하여 壇을 대체하였다. 즉 大報壇(청구요람/조선성지도), 南壇(대동여지도), 先農壇(도성도)의 壇(단 단)을 성부의 발음이 같은 ‘冎(무너질 담)’으로 대체하고 있다. 협소한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지도 이체자의 특성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

또한 『도성대지도』에서는 巡邏洞으로 표기하였는데, 『도성도』는 同音이자 形體가 보다 간략한 ‘羅’를 차용하여 표기하고 있다.

이런 독립적인 음의를 가진 글자를 과감하게 차용하는 것은 기존의 이체자를 수용하고 계승하는 수동적인 입장을 벗어나 地圖에 적합한 자형을 적용하려는 발전적이고 능동적인 일면을 나타내고 있다.

### 3-3. 이체자의 진화 : 혁신

고지도에 나타난 일부 이체자는 기존 이체자를 계승하거나 차용하는 단계를 초월하여 진화의 양상을 보인다.

예를 들어 『청구요람』에서는 ‘塵’자를 과감하게 그 부수이자 윤곽인 ‘广’만 취하여 표기하고 있는데, 전례가 없는 이체자의 진화이자 혁신적인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塵<sup>15)</sup>은 문헌에 따르면 국가에서 분배하는 ‘농촌의 택지’에서 ‘도시의 집

15) 塵에 대하여 『설문』에서:“一畝半, 一家之居. 从广里八土(1무 반이 한 가구의 택지이다. 广·里·八·土 등 네 가지 의미요소로 구성된 회의자이다)”라고 하였고, 『설문해자주』에서:“塵, 二畝半也. 一家之厠. 二各本作一. 厠各本作居. 今正.....从广里八土. 里者, 厠也. 八土猶分土也. 亦謂八夫同井也. 以四字會意(塵은 2무 반이다. 한 가구의 택지이다. 二畝라고 해야 하는데 각 판본에는 一畝로 쓰여 있고, 厠자도 각본에 居자로 쓰여 있는데, 지금 바로잡는다. 广·里·八·土 등 네 가지 의미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里는 집터라는 뜻이다. 八土는 分土(대지를 나누어주다)라는 뜻이다. 또한 여덟(八) 가구가 한 우물을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말한다. 네 글자로 이루어진 회의자이다”라고 하였다. 『方言』에서:“東齊, 海岱之間謂居曰塵(齊)의 동쪽 지역 황해(黃海)와 태산(泰山) 사이에서는

터'로 다시 '市宅'처럼 '市塵'의 의미로 쓰이게 되었다. 즉 '시장의 가게'라는 뜻이다.

市塵은 『大東地志·一·漢城府·市塵』<sup>16)</sup>에서:

市塵: 三大市, 卽. 鍾街梨峴南門也. 定宗元年始置市塵, 自惠政橋至昌德宮洞口左右行廊八百餘間聚.....永宗十七年令京北區別塵名, 嚴禁亂塵與都賈. 線塵, 綿布, 綿紬, 青布, 苧布, 紙塵, 魚物內外, 布塵, 煙草, 床塵十三, 生鮮, 米塵六處, 雜穀, 鎗器, 銀塵, 綿子, 衣塵, 履塵, 樺皮, 茵席, 眞絲, 清蜜, 京鹽, 長木內外, 鐵物, 烟竹, 銀麴, 匙箸內外, 馬塵, 菜塵, 毛塵六處, 貫物, 涼蓆, 雜鐵, 鹽塵, 雉鷄, 貫器內外, 繩鞋, 木器上下, 鑊塵, 黑笠, 白笠, 草笠, 佐飯四處, 網巾, 甑笠二處, 蕘草, 履底, 柴木, 篋子, 猪塵, 箭鏃, 刀子, 鹽水, 種子, 鬚髻, 雜物, 白糖, 卜馬諸具, 破木器, 針子, 粉塵內外, 簇頭里, 麻浦鹽, 南門外鹽.

라고 기록되어 있다. 惠政橋에서 昌德宮 洞구에 이르는 좌우 행랑에 800여 칸의 시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요람』은 고지도 가운데 서울의 市塵을 가장 자세하게 표기하고 있는데, 심지어 『대동지지』에 언급되지 않은 雨傘塵까지 표기되어 있다. 그 표기 상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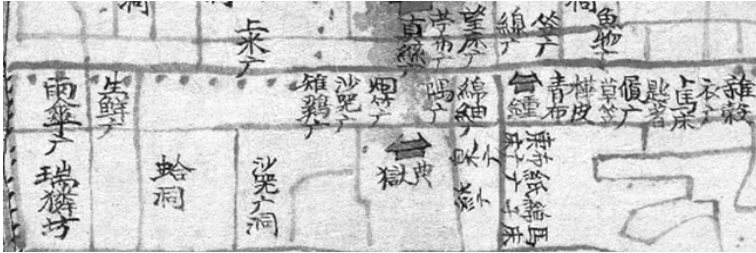
『청구요람·도성전도(6)』

塵자는 서울 고지도에서 주로 ‘塵’으로 표기되어 ‘广’이 ‘厂’으로 ‘八’이 ‘宀’로 자형이 변이되었다. 『청구요람』에서도 毛塵橋나 履塵洞 등은 ‘塵’으

택지를 塵이라 한다”라고 하였고, 『周禮·地官·遂人』의 『注』에서 :“塵, 城邑之居(도시의 집터이다)”라고 하였고, 『孟子·公孙丑上』의 『注』에서 :“塵, 市宅也(시장의 가게이다)”라고 하였다.

16) 金正浩, 『大東地志』, 古 4790-37-v.1-15, 규장각.

로 필사되어 있다. 그러나 魚物塵과 같은 市塵으로 사용된 ‘塵’자는 일률적으로 ‘广’으로 표기되어 있다.



『청구요람·도성전도(7)』



[履塵洞과 草塵洞 지역 지명표기]

위 지도에서 보듯이 『청구요람』은 고대 서울의 市塵을 매우 상세하게 표기하고 있다. 지도의 특성상 좁은 공간에서는 正字인 塵을 書寫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과감하게 ‘塵’자의 윤곽만 따서 ‘广’으로 표기하였다. 동일한 『청구요람』에서도 상대적으로 공간이 넓고 명칭 표기가 소략한 곳에서는 ‘塵’을 ‘屨(履塵橋/草塵洞)’으로 필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필사자가 ‘塵’을 ‘广’으로 誤寫한 것이 아니고, 지면 공간이 좁은 곳에서는 과감하게 그 윤곽만 따 ‘广’을 필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청구요람』은 중국 간화자가 ‘廣’의 윤곽을 따서 ‘广’을 채택한 것 보다 앞선 시기에 과감하게 ‘广(집 엄)’으로 ‘塵(가게 전)’을 대체하였다. 이 두 글자는 ‘가게’가 곧 ‘집’이므로 뜻도 서로 연관되어 대체하기에 더욱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한자 이체자형의 진화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자형을 과감하게 간화한 한자 자형 활용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罌를 罌로 생략하여 중국에는 없는 독특한 이체자형을 만들었다. 예를 들어 軍器寺(군기사:청구요람/도성도/대동여지도/도성대지도/조선 성시도)와 漆器(칠기:청구요람)의 罌를 罌로 표기하여 ‘罌’를 생략하고, ‘犬’의 소전형태 ‘犮’가 잔존하고 있다.

『說文』에서 ‘罌, 象器之口, 犬所以守之(그릇을 본 뜬 口를 개가 지키고 있는 모양을 묘사한 것이다)’라고 하였고, 『五經文字』에서도 “象犬守器之形(개가 그릇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본 뜬 것이다)”라고 하였다. ‘口’가 ‘그릇’으로 ‘개’가 지키든, 아니면 ‘口’가 개가 짖는 ‘입’을 나타내든(개가 짖다는 뜻), ‘口’는 두 개(罌)면 이미 충분하다는 판단아래 생성된 이체자이다. 실제거리를 많이 줄인 小縮尺 지도에서 서사나 판각의 공간이 제한적일 때, 군더더기 편방은 생략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또한 罌자에서는 罌을 생략하더라도 균형미는 다소 손상될지언정 자의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罌의 중국 이체자는 ‘罌’로 우리나라의 ‘罌’보다는 확실히 복잡한 구조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복잡한 편방의 과감한 생략과 전체자형의 윤곽만 취하는 이체자 활용 방안은 좁은 공간에 서사 또는 판각해야 하는 지도 이체자의 숙명적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 3-4. 고지도 이체자의 가치

글자를 書寫할 때 가장 주된 심리는 빨리 쓰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필사체의 주된 양상은 簡化이다. 물론 간혹 변별성을 강화와 글자의 균형미를 위하여 繁化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처럼 일반적인 상황에서 서사의 편리와 변별성 강화를 위해 필사과정에서 필획의 증감현상이 자연적으로 수반된다. 또한 빨리 쓰기, 지식의 결여, 서사습관, 사회의 발전 변화, 문자학적 작용 등으로 인해 誤寫字와 異寫字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체자가 생성된다.

본고의 분석에 따르면 고지도 이체자의 생성 원인 가운데 필사나 판각 공간의 협소함에서 기인한 이체자 생성의 루트가 존재한다는 것이 새롭게 밝혀졌다. 이러한 이체자의 가장 큰 특징은 簡化인데, ①부건(편방)의 생략(邏→羅), ②편방의 교체(廳→厅), ③간략한 후기 회의자의 채택(學→學), ④별자(다른 글자)의 차용(壇→塹), ⑤윤곽만 채택(塵→塵)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 III. 규장각 고지도 지명검색의 오류 교감

본 논문은 서울 고지에 나타난 한자 이체자의 자형의 유형을 귀납정리하고, 더불어 그 특색을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규장각 원문보기의 지명검색의 오류를 교감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현재 규장각에서 서비스 중인 원문자료 검색에는 아래와 같은 고지도 자료도 탑재되어 있다.

#### 고지도

통합검색  검색 상세검색

- 謄寫本(硃畵式) · 광여도(古 4790-58) · 해동지도(古大 4709-41) · 1872년 지방지도 · 여지도(古 4709-68) · 안동도회[좌물지도](古 4709-25) · 경주도회[좌물지도](古 4709-26) · 지승(奎 15423)
- 謄寫本(靑畵式) · 비변사인방안지도 · 조선지도(奎 16380) · 팔도균현지도(古 4709-111) · 동여도(奎 10340) · 성구도(古 4709-21) · 성구요령(古 4709-21A) · 경기도부출성도지도(奎 12164) · 동국여도(古大 4790-50) · 동역도(古 4709-27) · 삼한일합도(古 4709-104) · 조선팔도지도(古 4709-54) · 조선팔도지도(古 脣 912.51-1773) · 조선팔도지도(奎 13419) · 조선지도(古 4709-32) · 조선지도(奎 25200) · 조선지도(古 4709-77) · 여지도(古 4709-37) · 여지도(古 4709-99) · 팔도지도(奎 10331) · 팔도지도(古 4709-14) · 팔도지도(古 4709-23) · 팔도지도(古 脣 4709-48) · 좌역지도(奎 12228) · 좌역본도(古 4709-35) · 지도(古 4709-32) · 성구팔역도(謄寫 古 912.51-C 422a) · 팔도본도(古 915.1-p173) · 해동지도(古 4709-61) · 관동지도(古 4709-35) · 관서출도(古 脣 4709-28)
- 목판본(靑畵式) · 대동여지도(奎 10333) · 대동방어견도(奎 10341)
- 목판본(기타) · 동국여지도(古 4709-96) · 동국여지도(靑畵古 912.51-0717) · 동국지도(謄寫 古 912.51-0717) · 여지도(古 4709-58) · 지도(기타) 古 912.5-1961) · 동국여지승람(古 4700-45) · 조선지도(古 4709-38) · 조선지도첩(古 4709-11) · 팔도지도(古 4709-73)

또한 『靑邱要覽』과 『大東輿地圖』 등 전산화된 DB는 지명 검색 기능까지 제공하고 있다. 즉 지도상에 명기된 地名은 전부 추출하여 목록화[지명 색인]하였으며, 이용자가 지명을 클릭하면 지도상의 해당 지점이 화면 위에 크게 부각되어 자동 이동되도록 설계되어 있다<sup>17)</sup>.

이런 검색 방식은 한자로 표기된 지명을 讀圖하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매우 유용한 기능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본고에서 다루는 고지도 이체자의 비교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규장각의 지명 검색의 오류를 다수 발견하게 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용자의 오인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오류의 예를 들고 교감 수정하였다.

17) 허태구, 「규장각 소장 古地圖 · 邑誌類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 『韓國古地圖研究』 제6권 제2호, 2014.


### 1. 广(麿, 전)을 廣(광)으로 오인하여 ‘광’으로 오기

『청구요람·도성전도(6)』에 나타난 ‘鷄广’이나 ‘馬广橋’는 ‘계광’이나 ‘마광교’가 아니고 市麿을 나타내므로 ‘계전(鷄麿)’와 ‘마전교(馬麿橋)’으로 표기해야 한다. 이 외에도 『청구요람·도성전도(6)(7)』에 필사된 모든 ‘广’은 ‘麿’의 윤곽만 따온 이체자형이므로 모두 ‘~전’으로 표기해야 한다. ‘广’은 ‘麿’자의 우리나라 이체자이지, 중국에서 사용되는 ‘廣’의 간화자 ‘广’이 아니다.


### 2. 广(麿, 전)을 广(엄)으로 오인하여 ‘엄’으로 오기

 『청구요람·도성전도(7)』에 필사된 ‘米广’을 ‘미엄’이라고 표기하였는데, ‘广’은 ‘麿’자의 윤곽을 따온 이체자이기 때문에 ‘미전(米麿)’으로 표기해야 한다.

### 3. 蚕(蠶)을 원래 음인 ‘천’으로 오기

 『청구요람·도성전도(7)』에 필사된 ‘蚕頭’을 ‘천두’이라고 표기하였는데, 蚕은 본래 독립적인 음의를 가진 한자로 ‘지렁이 전’자이다. 蠶(누에 잠)의 뜻과 天+蟲의 회의적 의미가 맞아 떨어져서 임시로 차용한 것인데, 후대에는 오히려 蠶의 회의이체자로 더 많이 활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蚕頭는 ‘누에머리’를 지명으로 삼은 것이므로 ‘잠두(蠶頭)’라고 표기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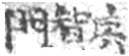
### 4. 관공서인 寺(시)를 절로 오인하여 ‘사’로 오기

 『청구요람·도성전도(2)』에 필사된 ‘司禱寺’를 ‘사도사’라고 표기하였는데, 관청으로 쓰일 때 ‘寺’는 ‘시’로 읽어야 한다. 따라서 사도시(司

導寺/司導寺)라고 표기해야 한다.

이 외에도 사대문 안에 있는 ‘대사동(大寺洞)’을 제외한 ‘~寺’는 대부분 ‘~시’로 표기하여야 한다. 즉 『청구요람·도성전도(3)』의 ‘內資寺, 奉常寺’ 등의 표기 역시 ‘내자사, 봉상사’가 아니라, ‘내자시, 봉상시’로 표기하여야 한다.

## 5. 廣을 庚으로 오인하여 ‘경’으로 오기

 『청구요람·도성전도(4)』에 필사된 ‘광지문(廣智門)’의 ‘廣’을 ‘庚’자로 오인하여 원문보기 지명검색에서 ‘문지경’으로 오기하였다. 뿐만 아니라 『청구요람·도성전도(4)』에 ‘廣智門’으로 표기된 곳은 실제로는 慶熙宮의 북문인 ‘武德門’이다. 즉 『청구요람』의 명칭 오기이다. ‘廣智門’은 昌德宮의 북문으로 『청구요람·도성전도(2)』에 이미 표기되어 있다. 『도성대지도』와 『도성도』의 해당 지점에는 ‘武德門’으로 올바르게 표기되어 있다.

## IV. 결론

9종의 서울 고지도 이체자의 상호 비교와 내부 비교를 통해 ①유형이 다양하고 동일지도 내에서도 다른 이체자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②器·瓦·塵의 이체자는 고지도에서 瓦·瓦·塵처럼 거의 일률적인 현상을 나타내고, ③우리나라 이체자의 계승과 활용, 발전과 차용, 진화와 혁신을 인지하고, ④기존 이체자의 수동적인 단순 계승을 뛰어넘어 능동적으로 발전하고 진화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본고의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규장각 『청구요람』의 지명 색인의 오류도 교정할 수 있었다. 이런 결과는 향후 이체자 연구와 고지도 자료 활용에 나름의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서울 고지도에서 공간적 제약으로 인한 새로운 이체자의 생성 루트도 파악할 수 있었다. 즉 『도성대지도(188×213cm)』, 『도성도(67×92cm)』, 『청구요람(27.5×20cm)<sup>18)</sup>』을 제외한 다른 지도는 크기가 20-30cm정도에 불

과하고, 특히 『대동여지도』는 목판식으로 판각을 해야 하므로 한자 편방을 과감하게 간략화하거나 간략한 회의자로 대체하거나, 아예 다른 글자를 차용하고 있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물론 『청구요람』은 충분한 크기이지만 市塵이 밀집되어 지역에 표기할 때는 ‘塵’을 과감하게 ‘广’으로 윤곽만 따서 간략화하였다. 그러나 서사 공간이 상대적으로 넓고 지명 분포가 소략한 지역에서는 ‘毛塵洞’, ‘履塵洞’처럼 정자로 표기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고지도 이체자의 일부는 제약된 공간에 서사하거나 판각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기인하여 생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렇게 변이된 이체자형은 지도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거의 모두 사전에 인지하였을 것이므로 실제 讀圖에는 혼동이 없었을 것이다.

본고는 고지도 이체자를 통해 우리나라가 기존/중국 이체자를 단순 수용하고 변화시키는 단계를 뛰어넘어 더욱 혁신적이며 지도 이체자의 특성을 충족시키는 자형을 창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塵’의 이체자인 ‘广’을 통해 고지도 이체자의 진화를 엿볼 수 있었으며, 이는 우리나라 특유의 이체자형으로 매우 소중한 자료로 간주된다. 이런 현상은 이체자 생성에서 외부 환경으로 인한 서사자의 문자 운용심리도 반영된다는 것도 시사하고 있다.

---

18) 『청구요람』에 수록된 「도성전도」는 모두 8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한 면의 크기를 27.5×20cm로 계산하여 합하는 경우 『도성대지도』와 비슷한 크기이다.

## 참고문헌

- 金正浩, 『靑邱要覽』,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부어,  
[http://e-kyujanggak.snu.ac.kr/home/index.do?idx=06&siteCd=KYU&opMenuId=206&targetId=379](http://e-kyujanggak.snu.ac.kr/home/index.do?idx=06&siteCd=KYU&topMenuId=206&targetId=379)
- 金正浩, 『東輿圖』,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부어,  
[http://e-kyujanggak.snu.ac.kr/home/index.do?idx=06&siteCd=KYU&opMenuId=206&targetId=379](http://e-kyujanggak.snu.ac.kr/home/index.do?idx=06&siteCd=KYU&topMenuId=206&targetId=379)
- 金正浩, 『大東輿地圖』,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부어,  
[http://e-kyujanggak.snu.ac.kr/home/index.do?idx=06&siteCd=KYU&opMenuId=206&targetId=379](http://e-kyujanggak.snu.ac.kr/home/index.do?idx=06&siteCd=KYU&topMenuId=206&targetId=379)
- 金正浩, 『大東方輿全圖』,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부어,  
[http://e-kyujanggak.snu.ac.kr/home/index.do?idx=06&siteCd=KYU&opMenuId=206&targetId=379](http://e-kyujanggak.snu.ac.kr/home/index.do?idx=06&siteCd=KYU&topMenuId=206&targetId=379)
- 『都城圖』, 古軸 4709-3, 模寫古軸4709-3,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e-kyujanggak.snu.ac.kr/home/index.do?idx=06&siteCd=KYU&opMenuId=206&targetId=379](http://e-kyujanggak.snu.ac.kr/home/index.do?idx=06&siteCd=KYU&topMenuId=206&targetId=379)
- 『都城大地圖』, 서14165, 한양도성박물관,  
<http://www.museum.seoul.kr/scwm/relic/RelicView.do?mcsjgbc=PS01003026001&mcseqno1=014165&mcseqno2=00000&cdLanguage=KOR>
- 『都城大地圖』, 서울역사박물관 유물관리과, 2004.
- 『首善全圖』, 서2080, 서울역사아카이브,  
[www.museum.seoul.kr/archive/archiveView.do?currentPage=1&type=C&type2=&arcvGroupNo=3120&lowerArcvGroupNo=&arcvMetaSeq=21692&arcvNo=67465&realArcvGroupNo=3120&searchVal=](http://www.museum.seoul.kr/archive/archiveView.do?currentPage=1&type=C&type2=&arcvGroupNo=3120&lowerArcvGroupNo=&arcvMetaSeq=21692&arcvNo=67465&realArcvGroupNo=3120&searchVal=)
- 『朝鮮城市圖』, 서13171, 서울역사아카이브,  
[www.museum.seoul.kr/archive/archiveView.do?currentPage=1&type=C&type2=&arcvGroupNo=3120&lowerArcvGroupNo=&arcvMetaSeq=21687&arcvNo=67460&realArcvGroupNo=3120&searchVal=](http://www.museum.seoul.kr/archive/archiveView.do?currentPage=1&type=C&type2=&arcvGroupNo=3120&lowerArcvGroupNo=&arcvMetaSeq=21687&arcvNo=67460&realArcvGroupNo=3120&searchVal=)
- 『漢陽圖』, 서8228, 서울역사아카이브,

- [http://www.museum.seoul.kr/archive/archiveView.do?currentPage=1  
&type=C&type2=&arcvGroupNo=3120&lowerArcvGroupNo=&arcvM  
etaSeq=21693&arcvNo=67466&realArcvGroupNo=3120&searchVal=](http://www.museum.seoul.kr/archive/archiveView.do?currentPage=1&type=C&type2=&arcvGroupNo=3120&lowerArcvGroupNo=&arcvMetaSeq=21693&arcvNo=67466&realArcvGroupNo=3120&searchVal=)
- 東漢·許慎撰 清·段玉裁注, 『說文解字注』, 台北, 天工書局, 1987.
- 梁·顧野王編 唐·孫強增修 宋·陳彭年重修, 『大廣益會玉篇』, 北京, 中華書局, 1987.
- 北齊·魏收, 『魏書』, 鼎文書局, 1977.
- 唐·張參, 『五經文字』, 清·鮑廷爵, 『後知不足齋叢書』 初編.
- 唐·唐玄度, 『九經字樣』, 清·鮑廷爵, 『後知不足齋叢書』 初編.
- 明·梅膺祚, 『字彙』,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1991.
- 京城帝國大學法文學部, 『大東輿地圖索引』, 奎章閣叢書第二別冊, 京城帝國大學法文學部, 1936.
- 金正浩, 『大東輿地圖』, 奎章閣叢書第二, 京城帝國大學法文學部, 1936.
- 도중만, 「국(國)자의 문화사 근대 중국의 국호와 속자」, 『중국사연구』 제118집, 2019.
- 王利器, 『顏氏家訓集解』增補本, 中華書局, 北京, 1993.
- 이경원, 『한국 한자 이체자 조사』, 국립국어연구원, 2002.
- 中華民國教育部國語推行委員會編, 中華民國教育部 『異體字典』, 台北, <http://dict.variants.moe.edu.tw/main.htm>
- 이경원, 「우리나라 漢籍 자료에 나타난 異體字의 樣相과 偏旁 變異 規律에 대한 연구」, 『中國語文論譯叢刊』第27輯, 서울, 中國語文論譯學會, 2010.
- 이경원, 「古地圖 京兆 四大門막 지역 한자 異體字 비교 연구」, 『비교문화연구』 21집, 2010.
- 曹雨揚, 劉靜萍, 「異體字界定中的幾個關鍵問題研究」, 開封教育學院學報, 2017.
- 中華民國國民黨政府, 『第一批简体字表』, 1935.
- 中國人民共和國國務院, 『漢字簡化方案·第一表』, 1956.
- 하영삼, 「부정성과 음험함을 제거한 한자들」, 『중국문화연구』 75집, 2019.
- 허태구, 「규장각 소장 古地圖·邑誌類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 『韓國古地圖研究』 제6권 제2호, 2014.
- 黃頌康, 「部分異體字的特徵、性質和來源」, 語言文字學, 1991.

<http://dict.variants.moe.edu.tw/main.htm> (검색일: 2019.05.05.)

<http://e-kyujanggak.snu.ac.kr/home/index.do?idx=06&siteCd=KYU&topMenuId=206&targetId=379> (검색일: 2019.05.05.)

<http://www.museum.seoul.kr/archive/archiveList.do?type=C&arcvGroupNo=3120> (검색일: 2019.05.05.)

❖ ABSTRACT

A Study on the Types, the Characteristics and the Value of the Variant Forms in the Old Downtown Seoul Maps – with Trivial Discussion on the Errors of the Kyujanggak Browsing Service

Lee, Kyeong-won

This paper focuses on collecting and examining (types of) variant forms of Chinese characters written in nine old Korean maps, and correcting problems in using the “searching for original material” service at the website of Kyujanggak.

Types of variant forms in the maps are classified as follow: i) Adding or subtracting a few strokes, ii) Simplifying the part of the characters, iii) Coding the parts of the characters, iv) Coding the half of the characters, v) Replacing the original character with another character with the same sound, vi) Adopting only the outlines of the characters, and vii) Replacing phonetic-semantic compounds (形聲) with the late combined ideograms (會意).

Features of various types of variant forms are summarized as below: i) Succession of the existing variant forms, ii) Development of the variant forms, and iii) Evolution of the variant forms. In addition, I also find out the existence of new routes of the genesis of new variant forms.

I also discovered errors in “searching place names” for the Map Book of Korea (靑邱要覽) provided by the website of the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For example, the searching service renders “魚物广” and “米广” of the original map as “魚物廣”, “米廣”, respectively, where 广 in the Map Book of Korea is, in fact, the variant form of 廛. Furthermore, “蠶(蠶)頭” is rendered as “친두”, “관공서(寺)” as “~사”, “廣智門” as ‘문지경’ and so on.



Last but not least, this variant form (𠄎) is assumed to be the highly rare variant form that is not found in variant forms used in Chinese literature. It can be considered as an evolutionary variant form that the innovational way to render the variant forms of Korea is applied.

Key Words : old Seoul maps, variant forms, evolution of variant forms, errors in Kyujanggak browsing system

- 논문접수일 : 2019. 05. 10
- 심사완료일 : 2019. 06. 01
- 게재확정일 : 2019. 06. 04

